

고린도 교인들에게

* 10/15 (목) 교전 ❶ 1-6장

편지 머리말

▶ 1:1-9 인사말

편지 본문 ❶ 전해들은 소식

▶ 1:10-4:21 교회 내의 분파

▶ 5-6장 음행과 소송

편지 본문 ❷ 전해 받은 편지

7장 결혼

8-10장 자유와 덕

11장 예배와 성만찬

12-14장 은사와 사랑

15장 부활

편지 마무리

16장 마무리와 인사말

예루살렘 교인을 위한 헌금

여행 계획과 추천 편지

마지막 경고와 인사

Before 줄치며 읽기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문제들의 주어는?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의
주어는?

After 묵상하기

오늘 내가 <선호>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묵상
#사역자 #모임 #교제

참고도서

BST 고린도전서(IVP)
How 고린도전서(두란노)
현대성서주석 고린도전서
백주년기념주석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관심과 열망이
각자의 지식과 배경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각자 선호하는 사역자들이 생겼습니다(1:12).
시기와 분쟁으로 당을 짓는 일이 생겼습니다(3:3-4).
성적인 스캔들, 성도 간의 고소 고발(5-6),
자유로움과 덕을 세우는 일 사이의 갈등들(8-10),
은사 문제, 신앙과 신학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등(12-15).
마치 현대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 <주체>를 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당신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신앙과 신학, 도덕과 행위, 자유와 덕.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문제는 늘 반복됩니다.
사람과 상황이 바뀌어도 <죄성>의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단지 로마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매순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도 <복음>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고린도교회의 이슈 주변에는 <영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앎과 체험, 그 깊이가 심오했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열정, 종교적 경험에 대한 갈망,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열망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과 실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심과 관심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했습니다.

* ‘영’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울서신에서 총 24번 등장한다. 그 중 15회가 고린도전서에서 쓰였다.

* ‘자만’과 ‘무례’에 해당하는 단어가 신약에 단 7번 등장하는데, 이중 6번에 고린도전서에 쓰였다.

* ‘자랑한다’는 단어는 총 53번 중 35번 이곳에 쓰였다.

그들은 종교 의식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세례와 성만찬을 매우 신비적인 차원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1:13-17)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성찬의 의미는 간과했습니다(11:17-24).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주장했습니다(2:6-9).

바울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들, 그들이 추구하는 특별한 지혜가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3:18-20).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것이 능력이 되고(1:18),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1:21-23),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함을 깨닫는 것입니다(1:25).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는 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 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1:25-28).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1:29)”

또한 고린도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배경>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과 소유, 배움의 차이가 파당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1-4장).

각자 영향받은 문화와 사상들을 기반으로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1:24, 2:8).

복음에 대한 분분한 해석과 견해들은 실생활에서의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덕이나 성, 부활, 종말론의 해석 기준이 <나>의 지식과 문화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2:10-16).

결국 고린도교회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모든 것의 단절로 연결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하나님도, 십자가도, 복음도 없이 <나>로 점철된 그리스도인의 나쁜 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통독의 맥 잡기

1:1-9 편지 인사말

1:1-9 불미스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예수그리스도를 힘입어 인사하노라.

1:10-4:21 전해져 온 불미스런 소식들 ① 파당

1:10-17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된 공동체

1:18-31 <인간적 기준>에 따른 파당은 하나님도 십자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분별하라.

3:1-17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3:18-23 스스로 지혜롭다고 속지 말라.

4:1-5 때가 될 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라

4:6-13 교만한 이들이여, 부름받은 우리의 고난을 보라! (대비)

4:14-21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하노니!

5-6장 전해져 온 불미스런 소식들 ② 교회 안의 부도덕한 일들

5:1-13 음행에 대한 경고 : 근친상간

6:1-11 그리스도인들 간의 고소 문제

6:12-20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음행의 문제